

해외의약뉴스

편두통 약이 일부 청소년의 식이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개요

편두통 약이 일부 청소년의 식이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migraine, eating disorder

편두통 약이 일부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오즈비를 높이는 것과 연계된 새로운 보고서가 있다. 그 편두통 약은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토파맥스(topamax))이다. 토피라메이트는 2014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사용이 인가된 인정받은 성인용 약이다. 보고서 연구자에 따르면 식욕 감소 및 체중 감소는 토피라메이트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한다.

“대다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토피라메이트는 엄청난 약이지만,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식이장애 증상의 계기가 되는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 저자인 마이애미 밀러 의대 소아청소년 식이장애 클리닉 심리학자인 Jocelyn Lebow가 밝혔다. 보고서에는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하는 것과 식이장애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는게 중요하다. 토피라메이트가 실제로 식이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소아과학 저널 온라인 4월 6일자로 공개되었다. 보고서에는 세부 병력으로 13~18세 사이 7명의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포함되었다. 여자 청소년들은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한 이후 식이장애가 진행되거나 기존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 Lebow는 보고서가 연구가 아니라 7가지 병력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유병률 연구가 아니다.”, “식이장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청소년들이다.”고 Lebow는 밝혔다.

리포트는 무엇을 제시하는가, Lebow는 식이장애에 특별히 민감한 일부 청소년들과 토피라메이트가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환자들 중 3명은 토피라메이트 복용 전에는 식이장애 증세가 없었다. 다른 3명은 토피라메이트 복용 전에 식이장애가 시작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환자는 식이장애 차도가 있으나, 그것은 토피라메이트 복용 이후로 되돌아갔다고 연구자는 보고했다.

청소년 중 4명은 명시되지 않은 식이장애로 진단되었다. 한 청소년은 음식을 폭식하고 토해내는 것 또는 완하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폭식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2명은 거식증으로 진단되었다(지나치게 음식을 머금고 극심하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체중 감소에 원인이 되는 장애). Lebow는 토피라메이트가 어떻게 식이장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체중 감소 그 자체가 식이장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안다.”고 밝혔다.

얀센제약(토피라메이트를 생산 및 판매하는 뉴저지주 나이터스빌 소재 제약사) 대변인은 그 조사결과들을 주의 깊게 가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 리포트와 우리 데이터베이스 및 의료문헌을 검토했고, 어떤 조사결과들이라도 적절히 FDA에 보고할 것이다."고 얀센R&D 커뮤니케이션 신경과학 책임자인 Greg Panico는 성명서를 밝혔다.

편두통 약과 식이장애의 관련성은 새롭지 않다고 덴버 식이회복센터장이자 국립 식이장애위원회 최고 과학 책임자인 Russell Marx박사는 "우리는 내내 토피라메이트가 성인과 청소년들 모두에게서 식이장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본다."고 밝혔다. "토피라메이트가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고 Marx박사는 밝혔고, 토피라메이트와 다른 약인 펜터민(phentermine)의 조합제가 FDA에서 만성 체중관리제로 승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그 보고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토피라메이트가 식이장애의 원인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스크랜턴시의 식이장애 치료 전문가인 Douglas Klamp박사가 밝혔다. Klamp박사는 편두통 약을 복용과 비복용한 사람들의 식이장애 경과를 지켜 볼 거대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lamp박사는 보고서에서 토피라메이트가 식이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상당히 확신했다"고 밝혔다. "토피라메이트의 작용 메커니즘이 뇌에 식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Klamp박사는 설명했다. Klamp박사는 식이장애의 위험으로 청소년들에게 토피라메이트 사용을 망설이게 된다고 밝혔다. "거식증 병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토미라메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청소년들이 편두통으로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한다면, 부모들은 식이장애 징후 경고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만약 당신이 많은 체중 감소 같은 일부 만연한 증세를 본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Lebow는 밝혔다. 다른 경고 징후인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갑자기 혼자 격리되어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평범한 행동 변화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Lebow는 밝혔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또한 의사들이 청소년 편두통 환자들이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하기 전에 식이장애 위험요인을 위한 검진을 제시했다. 덧붙여서, 어떤 사람이 토피라메이트를 처음 복용했을 때 주의 깊게 체중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1941.html